



ISSUES 04

동반성장

Business Relevance

기업 경쟁 구도가 협력회사를 포함한 기업 공급망 간의 경쟁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기업의 동반성장활동 참여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경영전략의 하나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SDI는 310여 개의 1, 2차 협력회사와 동반성장 협약관계를 맺고 있으며 협력회사의 역량 강화가 자사의 경쟁력 강화라는 믿음 하에 동반성장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기 | Risk

- ▶ 공정거래 및 하도급법, 규제 강화
- ▶ 공급망 관리 부실에 따른 경제, 사회, 환경 리스크 부각 가능성 증가

기회 | Opportunity

- ▶ 협력회사 경쟁력 향상을 통한 자사 제품 경쟁력 확보
- ▶ 동반성장활동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으로 기업평판 및 가치 제고

Our Approach

삼성SDI는 '함께, 더 멀리' 라는 동반성장의 가치에 맞게 협력회사와 상생의 관계를 넘어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 기술, 금융 등 다양한 방안의 지원을 통해 협력회사의 경쟁력 확보를 돕고, 공급망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협력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하여 동반성장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Our Vision

| 경쟁력 확보를 통한 동반성장 실현 |



Key Performance Index

KPI	2016 목표	2015 목표	2015 성과	달성여부
금융지원(억)	267	283	411	달성
인력육성지원(명)	632	400	482	달성
기술지원과 보호(건)	지속 확대	-	580	-



동반성장 체계

동반성장 비전 및 추진전략

삼성SDI는 경쟁력 확보를 통한 동반성장 실현이라는 비전 하에 혁신역량 확보 지원, R&D 협력 강화, 공정한 거래관계라는 3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전담 조직

삼성SDI는 동반성장 전략 및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대표이사 직속 구매팀 내 상생협력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그룹은 협력회사 지원을 위한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정거래 점검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프로그램 개요

삼성SDI는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역량 확보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 생산성혁신지원, 국내외 판로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R&D 협력 강화를 위해 기술지원, 금융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혁신역량 확보 지원

역량강화 교육 지원

삼성SDI는 협력회사 직원의 직무능력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삼성SDI 직업훈련원을 통해 집합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320명이 직무 위탁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교육인 크레듀를 통한 직무교육은 연간 16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교육 수강 협력회사 및 인원 수

구분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인원(명)	320	162
협력회사(개)	102	18

생산성혁신 지원

삼성SDI는 자사 지원위원이 협력회사에 상주하며 직접 생산성혁신 자문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IBK 경영컨설팅을 통해 경영, 재무 등의 분야에 전문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산업혁신운동, 스마트공장 등 정부추진사업에 참여하여 연간 6억 원을 투자, 30개 2·3차 협력회사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 국내외 판로 지원 성과

활동	실시
해외진출 프로세스 운영	상시
해외시장조사 지원	연 2회
협력회사 부품전시회 운영	11월
협력회사 혁신활동 발표회 운영	11월
FTA 설명회 개최	11월
구매상담회 참여 및 운영	11월

국내외 판로 지원

협력회사의 성과창출을 위해 국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법인을 활용한 해외진출 프로세스 및 해외시장조사로 해외 벤치마킹 및 현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FTA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여 협력회사에게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 및 당사주관 구매상담회에 참여해 상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여 매출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R&D 협력 강화

기술지원 및 보호

삼성SDI는 협력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제품, 신기술 개발에 대한 최대 10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SDI가 협력회사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전제로 협력회사에 신규 개발 과제비를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술임치제를 시행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기술을 안전하게 보관해 두고 기술유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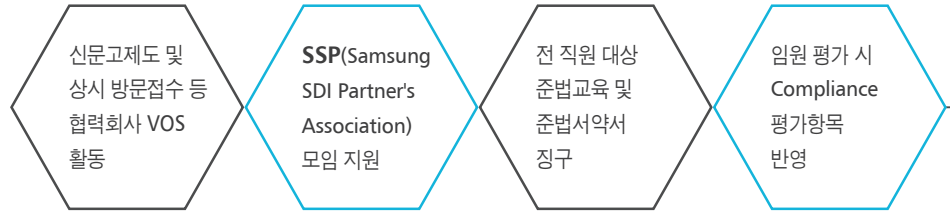
공정한 거래관계 확립

삼성SDI는 거래관계에 있는 전체 협력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공정한 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기반을 확립하고, 실천 및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운영 △협력회사 선정 및 등록 실천사항 운영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등의 세부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비한 내부규정을 제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SSP 운영

구분	일자	행사명
경영자	3월	정기총회
	5월	상반기 경영자세미나
	6월	해외벤치마킹 (베트남, 라오스)
	11월	하반기 경영자세미나
	11월	동반성장대축제
관리자	10월	관리자 해외벤치마킹 (중국 서안)

I 공정거래를 위한 소통활동



금융지원

대금결제 및 자금지원

삼성SDI는 협력회사의 재무 건전성 및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금결제 및 자금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금결제 관련 결제조건은 월 3회 마감 후 10일 이내 100%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 기성금에 대해서는 조기 지급을 시행하였습니다. 자금지원은 무이자 자금 대여를 제공하는 직접지원, 삼성SDI와 금융기관이 함께 지원하는 상생협력펀드 등의 혼합지원, 네트워크론, 패밀리론 등의 간접지원, 산업혁신운동·민관R&D·성과공유제 등을 통한 특별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원 금액	(단위: 원)
직접지원	126억
혼합지원	270억
특별지원	15억
총액	411억

상생결제시스템

삼성SDI는 2015년 11월부터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3차 협력회사들이 삼성SDI에서 발행한 결제채권을 대기업 수준의 수수료로 시중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지속가능경영

S-Partner 제도

S-Partner 제도는 삼성SDI가 공급망 관리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협력회사의 가치 사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사회적으로 노동, 안전 및 보건, 환경법규와 규제, 윤리 등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진되고 있으며 특히 이와 관련된 이슈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삼성SDI는 고객사 등 주요한 이해관계자들의 해당 이슈들에 대한 관심 및 요구 증대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 정책을 실천하고자 S-Partner 제도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I S-Partner 인증 프로세스

사전 프로세스

식별	교육
글로벌 스탠더드, 로컬 법규 및 규제, 고객 요구 등 규제 변경사항 반영	I준법·CSR 교육 정례화 I해외 협력회사 교육 강화

평가 프로세스

자가진단 (협력회사)	1차 현장심사(SDI)	개선계획 제출(협력회사)	재심사 (SDI)
* 메가스텝 내 S-Partner 체크시트 작성	SDI 심사원의 현장심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계획 제출 (전 협력회사 1개월 내 제출)	개선계획 이행여부 심사 (* 기준 미달 협력회사 3개월 이내 실시)

* 메가스텝 | 협력회사 포털

* 기준 미달 협력회사

기준 협력회사 -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신규 협력회사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평가 프로세스

삼성SDI는 당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전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적어도 2년에 1회씩 협력회사 S-Partner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시에는 EICC(전자업체행동규범) 체크시트 기준 노동법규, 준법경영, 환경, 시스템, 안전보건의 5대 부문을 중점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협력회사의 자가진단과 삼성SDI의 현장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현장심사 결과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협력회사에 S-Partner 인증서를 부여합니다. 평가에서 2회 이상 A등급 취득 시 S-Partner 자율관리 협력회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염배출, 법규위반, 근로 계약서 미계약, 아동 노동(해당 국가 법 적용) 등을 필수 준수 항목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한 협력회사와는 거래 중단을 검토합니다.

Business Case

2차 협력회사 방문

삼성SDI는 협력회사와의 소통을 통한 진정한 동반성장 추진을 위해 구매총괄임원이 2차 협력회사를 방문, 협력회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SDI는 정부지원자금 활용의 최대화, 소통 활성화, 산업혁신운동 등의 정부정책과 연계한 경영혁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2015년 운영 현황 및 개선사항

삼성SDI는 2015년 국내 및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지역의 90개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 하였습니다. 2015년 평가 결과, 4개사가 인증기준에 미달하였으나 재심사 결과 모두 통과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아동 노동 등 필수 준수 항목에 대한 위반 사례는 없습니다.

2015년에는 심사결과 근로계약서, 환경법규등록부, 윤리, 폐기물보관 및 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프로세스를 정립하였습니다. 또한 협력회사에 환경, 안전보건, 유틸리티 등의 관련 전문가를 파견하여 지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지역 협력회사에는 EICC Audit을 지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 목표 및 심사 방향

2016년에는 100개의 국내외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경영 교육 및 CSR 교육, 점검방법 표준화 등을 통한 협력회사의 준법체계 강화, S-Partner 체크리스트 항목 개정, 항목 별 심사 기준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한 S-Partner 체크리스트 강화, 협력회사 자율인증체계 구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S-partner 인증 실적

(단위: 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Goal)
국내	72	76	85	67	66	60
해외	26	7	17	31	24	40
합계	98	83	102	98	90	100

분쟁광물

이슈광물의 관리

콩고민주공화국 및 주변국에서 생산되는 탈탄륨, 주석, 텅스텐, 금 등의 4대 광물을 기반으로 자금을 동원한 무장단체들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 및 인권 유린이 발생하고 있어, 미국에서는 분쟁광물 관련 법령이 발효된 바 있습니다. 또한 법규에 지칭된 분쟁광물뿐만 아니라 채굴 과정에서 아동노동 등 인권 침해 및 환경 파괴의 여지가 있는 광물의 조달에 대해 사회적 책임 이행 요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산업계 또한 공급망에서의 광물 조달과정의 투명성과 추적성 확보는 물론, 채굴단계의 인권 및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분쟁광물 정책

삼성SDI는 분쟁광물을 제품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협력회사와 제련소 등 공급망에서의 분쟁광물 사용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쟁광물 사용 금지 정책'을 수립하고 협력회사의 행동규범에 반영하였으며, 협력회사의 인식제고를 위해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쟁광물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협력회사 포털(Mega step)과 인트라넷(Sustainability Management Initiative System)에 분쟁광물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 여부에 대해 정기적인 조사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쟁광물 대응 활동

2015년에는 분쟁광물 조사를 전자재료사업부 및 SDIBS(SDI Battery Systems) 등 신규 편입된 사업부문 까지 확대하였으며, 협력회사에 대한 교육 및 가이드를 통해 미승인 제련소를 승인 제련소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습니다.

I 분쟁광물 모니터링 시스템

목표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광물 조달**

모니터링/ 개선 프로세스	제품 내 3TG 사용 자재 확인	3TG 사용 협력회사 조사(원산지, 제련소 등)	승인제련소 전환
관리 시스템	협력회사 포털 및 인트라넷 협력회사 조사 시스템 구축 (Conflict Minerals Reporting Template 온라인 시스템)		

* 3TG : Tantalum, Tin, Tungsten, Gold

향후 계획

2016년에는 협력회사에 4대 광물을 공급하는 제련소 중 CFS(conflict free smelter,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제련소) 인증 제련소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4대 광물 외에 콩고 지역 코발트와 같이 인권침해, 환경파괴 등의 사회적 이슈와 연관된 광물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책임 있는 광물 조달을 위한 투명성과 추적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Business Case

삼성SDI의 책임있는 광물 조달을 위한 노력

2016년 1월 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는 아프리카 콩고 지역 코발트(Cobalt) 채굴 광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노동 및 인권유린 실태와 글로벌 IT 기업들의 연관성을 다룬 보고서를 웹사이트에 게재하였습니다.

국제엠네스티는 해당 보고서에서 삼성SDI가 콩고 광산에서 아동 노동을 통해 채굴된 코발트를 공급받아 배터리를 생산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고, 해당 주장과 관련하여 삼성SDI는 코발트 관련 협력회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면 조사결과와 정합성 확인을 위해 6월부터 현장실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6년말까지 코발트 업스트림에 대한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삼성SDI는 아동노동 등 인권 침해에 대해 엄격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조사와 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22일, 삼성SDI는 OECD, CCCMC(China Chamber of Commerce of Metals Minerals & Chemicals Importers & Exporters)가 주관하고 콩고민주공화국 등 정부기관, NGOs, 코발트 공급회사, 이차전지 제조사, IT기업들이 참석한 코발트 이슈 공동 대응 국제 워크숍에 참석하여 콩고 광산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코발트 공급에 대한 공동의 이니셔티브(Initiative)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공급망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광물 조달과정의 투명성과 추적성을 높이고 공급망 내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협력회사들과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